

불안한 그를 꼭 안아주라

사무엘상 15:22-31

경계성 성격장애

우리나라는 많이 진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경계성 성격장애가 훨씬 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깊은 불안이 항상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워서 이 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전적인 이유로, 혹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운 환경에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하면서 성격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예상된다면, 그 사람을 성격장애로 낙인 찍지 말고 그들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림받지 않으려 필사적인 사울

오늘 본문 말씀의 사울도 버림받지 않기 위해 무척 노력합니다. 사울왕은 아말렉과 싸워 이겼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본심은 백성들이 그가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것을 알게되지 않고, 그 백성들에게 버림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큰 불안은 신앙을 갇아먹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변덕스러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죽이려던 다윗에게 순간 감정이 바뀌면서 울며 축복하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헛소리를 하고 전쟁을 나가 승리한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는 등 충동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사울은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의 불안은 믿음을 좀먹고, 백성들의 관심을 더 신경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만난다면

경계성 성격장애의 사랑받지 못한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정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되 예외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리더와 공동체가 함께 그 사람을 대하고, 신뢰할만한 관계가 될 때 전문가의 치료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형제 자매를 만났을 때,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적절히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